



새벽의 의미

대송고 1-2 곽 현

새벽, 아침을 여는 시간.

나는 대송고 1학년 2반의 반장,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우리 부모님보다 일찍 일찍 일어나, 매일매일 새벽을 맞이한다. 그러고는 7시에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우리 반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시간표를 고치고, 오늘 일정을 적어두어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나도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듯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친구들이 믿고 뽑아준 1학년 2반의 반장, 그렇기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반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런 ‘새벽’은 나에게 친구들의 믿음이자 나에게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시간이다.

비록, 새벽이 아닌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1학년 2반의 반장! 그렇기에 아침 6시라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이었어도,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열 것이다. 평소에는 내가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열 준비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아침을 열지는 못하지만 3시, 4시나 되어서야 잠에

들어 새벽을 열고 잠에 든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여셨다. 그때마다 나는 회사에 출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새벽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더 잘 수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에 대해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곤 했지만, 나 또한 새벽을 열게 되어 우리 가족 모두가 새벽을 열었을 땐, 함께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정겨운 풍경이 있어서 좋았다.

한편, 이제는 앞서 말했듯 내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나와 부모님 모두 나이를 더 먹은 지금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깨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회사일로 많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새벽을 열고 함께 밥을 먹는 정겨운 풍경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 나에게 ‘새벽’은 정겨움의 시간이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벽’이라서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새벽’이 마냥 아쉽고 싫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새벽’은 부모님에겐 조금이라도 더욱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기에 나는 지금 이러한 ‘새벽’도 좋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릴 적 정겨운 추억의 기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즉,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새벽’이라는 시간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단순히 이른 아침의 시간 개념이 아닌, 매 순간 그 의미가 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의 나 자신 또한 이 글을 쓰는 주제와 우연의 일

치로인지 긴장한 탓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새벽’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단순히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난 ‘시간’이 아닌, 처음 참가해 보는 글짓기 대회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가 담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내 글이 수상작에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뽑히게 되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 일어난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라고 질문하고 싶다. 시간은 단순한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다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다.

나는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또 다음 주도, 매일매일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참 단순한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기 나름에 따라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처럼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가 삶에 대한 작가가 되어 그 의미를 찾아 나가보자!